

삐뚤삐뚤 치아 ‘투명교정’으로 심미성·편의성 동시 해결



김 선 미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소아치과 교수

교정치료

플라스틱 재질 통증·이물감 적어
탈착 가능해 식사·양치질 등 편리
기존 철사 교정보다는 비용 높아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의 교정 치료를 진행하다 보면 브라켓과 같은 교정 장치가 심미적으로 부담스럽고, 2~3년 부착하는 동안 교정 장치로 인해 칫솔질에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해 충치가 생기는 것을 보고 교정 치료가 불편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모들은 좀 더 심미적이고 간편한 교정 치료 방법을 없을까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최신 어린이 교정 치료 방법에 대해 김선미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소아치과 교수를 통해 알아본다.

◇‘브라켓’ 배열 개선 효과…단점도

어린이가 성장하면서 치아가 가지런하지 않거나, 위턱과 아래턱의 맞물림이 정상적이지 않을 시 ‘부정교합’이라고 한다. 부정교합은 턱의 성장을 조절하면서 치아를 가지런히 정렬하는 교정 치료가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아래턱이 위턱보다 앞으로 나온 3급 부정교합은 페이스마스크(Facemask) 치료가 많이 이뤄졌다. 반대로 위턱이 아래턱보다 앞으로 나온 2급 부정교합은 헤드기어(Headgear) 같은 장치가 사용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성장기 어린이의 턱뼈 성장 조절에 효과적이지만, 장치의 크기가 크고 장시간 착용해야 해 불편함을 느끼는 아이들이 많다.

치아가 가지런하지 않고 삐뚤삐뚤한 경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브라켓을 이용한 고정식 교정 장치이다. 치아 하나하나에 브라켓을 부착하고 철사를 이용해 치아를 서서히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치아 배열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브라켓 교정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치료 중 철사가 빠지거나 브라켓이 떨어질 수 있어 추가적인 내원이 필요하다. 또한 브라켓이 부착된 부분은 칫솔질이 어려워 충치나 잇몸 염증이 생길 위험이 높아 철저한 구강 관리가 필수적



투명교정장치(왼쪽)와 어린이가 투명교정장치를 끼우고 있는 모습.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제공〉

이다. 특히 학업에 바쁘거나 평소 구강 위생 관리를 잘 하지 않는 어린이는 다발성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투명 ‘인비절라인’ 확대 추세

최근에는 인비절라인(Invisalign)과 세라핀(Serafin) 같은 투명 교정 장치가 발전하면서 어린이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비절라인은 눈에 거의 띄지 않는 투명한 재질로 제작돼 심미성이 뛰어나며, 탈착이 가능해 식사나 양치질 시 편리하다. 또한 부드럽고 유연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통증과 이물감이 적어 어린이들이 보다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

특히 인비절라인은 구강 내 스캐너와 3D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디지털 이미지를 생성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해 교정 치료 방법을 분석한 후에 측 가능한 치료 시뮬레이션을 제공한다. 교정 장치는 이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치아 이동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기존의 철사 교정과 비교했을 때 보다 체계적인 치료 계획이 가능하다.

실제로 1천만명 이상의 교정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해 더욱 정밀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와 치과의사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정 방법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각 환자의 부정교합 유형과 치아 배열에 맞는 최적의 치료 계획을 제안할 수 있으며,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점점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개인 맞춤형으로 제작된 장치를 약 1주 간격으로 교체해 점진적으로 치아를 이동시킨다. 일정 기간 장치를 교체하면서 치아 배열이 가지런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투명 교정은 삐뚤삐뚤한 치아, 벌어진 치아, 좁은 치아궁 등 다양한 부정교합을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투명 교정 장치는 하루 20시간 이상 착용해야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 환자의 협조도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턱뼈의 복잡한 성장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통적인 교정 장치와 병행해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더불어 기존 철사 교정에 비해 비용이 더 높다는 단점이 있다.

투명 교정 장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성장기 어린이의 교정 치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어린이의 교정 치료는 성장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치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기수희 기자

밝은안과21병원 ‘제17회 눈그림 공모전’ 개최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와 함께

유치원·초등생 대상 30일까지

34개 수상작 병원 로비에 전시



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10명 ▲입선 20명 총 34명의 수상자가 선정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품 및 상품이 수여되고 수상작은 병원 1층 로비에 전시된다.

공모전 결과는 7월9일 밝은안과21병원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7월19일 밝은안과21병원에서 진행된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밝은안과21병원 홈페이지(www.happyeye.co.kr)에서 확인하거나 밝은안과21병원 기획홍보실(062-367-3737)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엽 대표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들이 눈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전국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 ‘자선 걷기대회’ 실시

결음수 환산 희귀질환 치료비 기부

기업·단체 직장인 등 순차적 운영

KH한국건강관리협회가 전 직원 자선 걷기대회를 통해 희귀난치성질환 환우들을 돕는다.

3일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자선 걷기대회는 전 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을 장려하고 이를 기부와 연계해 사회 공헌을 실현하고자 기획됐다.

협회는 자체 개발한 모바일 걷기 앱 ‘메디워크(Mediwalk)’를 통해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참가자는 하루 1만보씩 30일간 총 30만보 걷기를 목표로 하며, 기록된 걸음 수는 1천보당 100원으로 환산해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치료비로 기부된다. 자선 걷기대회 참가자에게는 목표 달성 시 기념품이 제공되고, 희귀난치성질환

환우를 위한 응원메시지 전달, 건강미션 인증, 설문조사 참여 등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진다.

협회는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1차 자선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기업 및 단체 직장인(2차), 협회 방문 내원고객(3차)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운영해 일상 속 실천 가능한 건강 활동을 통해 나눔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인원 건강관리협회 회장은 “이번 자선 걷기대회는 건강과 나눔을 동시에 실천하는 뜻깊은 행사”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익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기수희 기자

치사율 14% ‘A군 연쇄상구균’ 법정감염병 추진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 실태 분석

최근 해외에서 급증하고 있는 ‘A군 연쇄상구균’ 감염에 대한 공포가 국내에도 엄습하고 있다. 피부 감염부터 치명적인 독성쇼크증후군까지 유발하는 이 세균은 심지어 기존보다 독성이 강한 변이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 차원의 감시체계 없어 정확한 발생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깜깜이 방역’ 상태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다행히 정부가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

성을 인지하고 해당 감염증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현주 교수 연구팀이 질병관리청의 의뢰로 수행한 ‘국내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시체계 구축’ 연구 결과, 최근 10년(2015~2024년)간 감염 사례는 총 383건에 달했다. 이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고나 제한된 자료를 통해 집계된 수치로, 실제 감염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염 환자의 83.3%(319건)가 성인이었으며, 1

6.7%(64건)는 소아였다.

이들 중 41.5%(159건)는 감염으로 인해 수술이나 피부 절개술을 받아야 했고, 1.3%(5건)는 팔다리를 절단하는 비극을 겪었다. 또한 환자 10명 중 3명꼴(27.2%)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높은 사망률과 후유 장애 발생률이다. 전체 환자의 14.4%가 이 감염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11.7%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심각한 후유 장애를 겪게 됐다.

실상가상으로 최근 해외에서 독성이 훨씬 강한 것으로 보고된 ‘M1UK’ 변이 A군 연쇄상구균이 국내에서도 2020년과 2023년에 각각 1건씩, 총 2건 확인됐다. /연합뉴스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착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